

옛날 직지사 산문에는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나이 든 토박이들은 지금도 '장승백이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장승은 일진왜란 이후 절집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수문장이다. 지금 남아있는 대문사 장승이며, 벽송사 장승이며, 남장사 장승이며, 관룡사 장승이며 모두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 장승들이 사라진 절집일수록 주변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래기행

(5) 황악산 직지사

글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오늘 직지사 산문을 돌아오는 능여계곡의 물이 몇 달째 탁탁이다. 김천시가 민박마을과 문화공원을 조성한답시고 수만평의 직지사 들머리를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문 코밑에다 수백평의 대형 식당을 짓겠다고 땅주인이 나서 이래저래 직지사가 골치를 앓고 있다.

직지사 일주문 기둥은 1천년 묵은 짜리나무라는 전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느티나무이다. 절집 전설에서는 느티나무가 흔히 짜리나무로 둔갑한다. 느티나무는 무늬가 아름답고 재질이 단단해서 예부터 불상이나 사리함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전 천왕문 옆에는 사명당의 출가전설이 깃든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사명당은 어린 시절 황악산 기슭에서 유학을 배웠다. 당시 주지로 있던 신목대사가 참선 중에 천왕문 옆 은행나무 밑에 황룡이 꼬리를 뽐고 있는 꿈을 꾸고는 급히 일어나 갔더니 한 소년이 은행나무를 베고 잠들어 있었다. 신목은 부처님의 뜻이라 여기고 소년을 문하에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그 은행나무는 지금 사라지고 없다. 절의 외양은 예전보다 커졌지만 현재 직지사에는 베고 누울 만한 큰 나무가 없다. 직지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오늘이 그렇다.

웅향각 땃들 곁의 상사화가 마지막 꽃망울을 남기고 있다. 땃들 위에 놓인 스님의 아한 고무신과 여름 내내 짝을 해온 상사화는 절집에 있어야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이다. 상사화는 옛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 갔다 돌아오는 길에 처음 가져왔다는 꽃이다. 향적인 담장 아래 옥잠화, 자주달개비, 참나리, 맥문동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배롱나무, 구기자, 불두화도 이웃하고 있다.

부처나비 한 마리가 풀잎 위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있다. 우리 학자들이 굳이 부처나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나비의 학명이 '고오타마(gotama)'이기 때문이다. 애벌레들이 주로 버섯 식물들을 먹고 자란다는 점도 다른 나비와 구별된다.

웅진전 앞에는 제철을 만난 파초들이 우람하고, 사명각 주위엔 요염한 배롱나무꽃이 한창이다. 절집 안의 식생을 돌아보노라면 옛 수행자들의 생태적 인묵에 놀랄 때가

많다. 은행나무를 비롯해 파초, 배롱나무, 불두화, 상사화 등도 그들에 의해 전래된 식물들이다. 특히 파초는 '달속'이라는 꽃말로 해서 절집에 더욱 잘 어울린다.



◇은선암에 오르는 길에 핀 마타리꽃.



◇황악산 직지사. 이호신 작(100×51cm), 2000년.



◇직지사 사명각과 영부전 사이에 배롱나무꽃이 한창이다.

◇깊은 명상속의 부처나비.



웅진전 앞 파초·배롱나무·상사화 절 상수원 능여계곡 1급수 자랑

비로전 석탑을 지나 황악루에 이르면 '염주나무'로 불리는 피나무와 경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흑백나무와 벽오동나무가 한 그루씩 나란히 서 있다. 벽오동(栂栲)은 줄기 색깔이 푸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간혹 일반 오동나무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벽오동꽃은 연자주색 오동꽃과 달리 연노란색이다. 벽오동은 한 해에 한 마디씩 자라므로 마디 수를 세어 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 산중다원에서 차 한잔을 음향하고 나서면 등산로가 보인다. 은선암, 중앙, 백련암,

운수암 등의 산내 암자들이 모두 이 등산로 주변에 있다. 황악산은 이름이 주는 느낌이와는 달리 산세가 우아하고 부드러운 육산이다. '黃岳'을 더러 '黃鶴'으로 표기해도 옹서되는 것은 황악의 산세가 학의 잔등처럼 부드럽기 때문일 것이다. 등산로도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여유롭게 산을 탈 수 있다. 호연림 가운데로 은선암으로 가는 오솔

흥단딱정벌레·부처나비 등 서식 황악산 정상엔 드넓은 억새밭

길이 나 있다. 숲을 찾아들면 햇빛 좋은 풀밭들이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다. 싸리꽃, 누리장꽃, 물봉선, 맥문동, 들장미꽃, 며느리밥풀, 마타리, 까치수영, 구절초, 속부쟁이, 허꽃, 닭의 장풀, 달맞이꽃, 풀풀, 썩살풀... 가을을 마중 나온 꽃들이 피어있다. 여름날 은선암은 농소화가 한창이다. 높은 석벽이며 대웅전 마당이며 온통 농소화로 뒤덮여 있다. 농소화 역시 옛 수행자들

이 중국에서 들여온 식물로 알려져 있다. 색상이 화려하고 기품이 있어서 조선 유교사회에서는 '양반꽃'으로 불렸다. 그래서 상민 집에서는 함부로 심지 못했다. 능여계곡은 직지사의 상수원으로, 이기가 전혀 없는 1급수이다.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이다. 몸 속의 물이 2% 부족하면 인간은 갈증에 시달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며, 10%만 부족해도 생명을 잃는다. 산도 마찬가지로이다. 지하수를 비롯해서 물이 5%만 부족해도 식물들이 종자를 맺지 못한다. 10%가 부족하면 그 산의

짐승들이 살지 못해 서식처를 옮긴다고 한다. 산중에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마냥 쓰고 버릴 게 아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삼거리에 관음스님이 주석하는 중앙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길에서 벗어나 숲 속으로 들어서면 햇빛량이 많은 초지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 구절초, 침취, 참나물을 중심으로 한 들국화종류가 절집을 차지하고 있다. 들국화류 말고 꽃고부리가 오리를 달은 진범, 초롱 모양의 연보릿빛 모시대, 화려한 주홍색의 동자꽃, 바람개비처럼 생긴 흰송이꽃, 분홍색의 산오이꽃, 사위질방, 각시원추리, 누런내쭈, 이삭여귀 등이 보인다. 머지않아 초롱을 달은 더덕꽃도 피어날 것이다.

날개 가장자리가 검은 대만흰나비를 비롯하여 긴꼬리제비나비, 왕자팔랑나비, 네발나비 등이 장삼자락 휘날리듯이 날개짓을 하며 앞서 걸잡이를 한다. 이형성인 나방은 숲 속에서 미동도 없이 낮잠을 즐기고 있다.

황악의 숲에서 볼 수 있는 딱정벌레 가운데 가장 눈길 끄는 것은 흥단딱정벌레이다. 우리나라 딱정벌레류 가운데 가장 덩치가 좋아 몸 길이가 4센티미터에 이른다. 머리와 딱지날개는 흑흑색의 금속광이 나고, 가슴에는 붉은 광택이 난다. 딱지날개는 끝이 뾰족하고 길며, 7개의 검은 흑과 세로줄이 있다. 낮에는 풀이나 낙엽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한다. 직지사 숲의 생태지표종으로 이의가 없다.

백련암은 비구니 암자이다. 그래서 그런지, 백련암으로 오르는 길은 조심스럽다. 암자로 가는 숲길에 각시원추리 한 송이가 외롭게 피어있다. 햇볕을 찾아 사슴처럼 목을 길게 내민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바람결에 땀도 씻을 겸 그의 짝이 되어주기 위해 곁에 앉았다.

감동은 오로지 개인적인 체험이기에 같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동의 크기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가 자연을 사랑한 만큼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만큼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한 만큼 아름다웠다. 백련암 땃밭에 잘 자란 초피나무 두 그루가 인왕처럼 서 있다.

백련암을 내려오면 정상인 비로봉(1,111미터)까지는 운수암을 지나 쉬엄쉬엄 1시간 걸린다. 더덕 냄새 풍기는 산길은 여전히 모로 누운 여인의 허리처럼 완만하고 부드럽다.

정상에 이르면 '비로봉' 표석이 있고, 드넓은 억새밭이 펼쳐져 있다. 동북방향으로는 추풍령을 지나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유연하게 뻗어있고 남서쪽으로는 삼도봉과 덕유산으로 산줄기가 흘러가고 있다. 포대기같은 황악의 품안에 직지사가 안겨 있다. 황악은 그대로가 관음이다.

위덕 7년, 7대 성취 - ● 취업률 전국 대학 4위 (3년 연속 80% 이상) ● 2000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 2000 교육대학원 최우수대학 ● 2000 대학재정지원평가 우수대학 ● 2001 고교교육 우수대학 ● 2002 IT 특성대학 ● 2002 교육개혁 우수대학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가 불교의 성지, 천년 고도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예술의 보고입니다.
불교문화 및 예술은 21세기 새로운 학문분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는 문화의 세기를 맞아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불교문화의 이해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입학전형 (수시 2학기 모집요강)

- 모집단위 : 불교문화학부 불교학전공, 불교문화전공
- 모집인원 : 23명
- 전형방법
- 【불교계추천 입학전형】
 - 불교성직자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생활부와 면접전형
- 【교령자 및 주부 입학전형】
 - 만 30세 이상인 자와 주부
 - 학생생활부 100%
- 장학제도 : 교내외 불교장학 및 성직자 장학
- 입학원서 교부 : 2002. 8. 26/월
- 본 대학 정문, 전국 주요서점
- 입학원서 접수 : 2002. 9. 10(월)~9. 13(목)
- 합격자 발표 : 2002. 11. 11(일) 이전

● 교육목표

- 체계적인 불교학·철학적인 불교문화의 정립
- 불교학전공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현대 불교학의 가치를 탐구한다.
- 불교문화전공 불교문화학을 창의적으로 계승하여 미래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창출한다.

● 교육과정

- 불교학과 불교문화의 영역별 교과과정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 불교학을 바탕으로 하는 실용적인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 현장중심의 불교문화 교과목을 통하여 실질적인 불교현장에 대한 경험을 얻는다.
- 교과목과 개별적인 진로지도를 연계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한다.
- 기타 모든 학부의 전공을 복수 전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 연구회 설치 및 복수전공

- 종학연구회 : 종학의 기초 향상(종비생 위주)
- 원전연구회 : 원전 연구능력 향상(영어·중국어 및 산스크리트어 타이어 독해)
- 불교교육연구회 : 어린이 불교학교, 자상학교, 청소년 등의 교육(교직과정·아동학부 복수전공제)
- 불교사회복지연구회 : 불교사회복지의 경험(사회복지행정학부 복수전공제)
- 불교문화예술연구회 : 불교 문화예술의 체험(불교문화예술수강제)
- 불교전산연구회 : 불교전산 인프라 및 불교학의 전산화와 관련한 전산연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uidu.ac.kr/~ps) 또는 입학원서지(054-760-1061~4) 불교문화학부 사무실(054-760-1510, 1513-5)로 문의

